

「어린이제품 안전종합대책」토론회 개최

11 제8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기술표준원(院長 金惠旻)은 어린이안전네트워크(代表 尹宜化 등)와 공동으로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제품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5월 2일(월),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신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안전네트워크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시민단체 연합회임

11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도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학부모, 소비자단체, 정부가 함께

고민하는 등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어린이가 바라본 어린이제품 안전실태 및 문제점'을, 윤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가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구축 방안」을 그리고, 최형기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 이어서 소비자(2명), 사업자(3명), 교사(1명), 의사(1명) 및 안전관련기관(2명) 등 9명의 전문가가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벌였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안전관리체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제품 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전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

○ 또한, 어린이안전네트워크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위해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휴대폰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 측정방법” KS규격화

기술표준원은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하여 7월초 고시할 예정이다.

○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람의 머리부분에 밀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력은 미약하지만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번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규격은 IEC 62209-1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규격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TC 106기술위원회에서 지난 2월 28일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이다.

○ 이 규격의 제정은 1999년 독일에서 제안하여 IEEE, CENELEC과 공동으로 휴대폰 제조업체, 시험검사기관 및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1개국의 전문가들이 규격 제정에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가대표기관인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규격 제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정한 이 규격은 휴대폰제조업체 및 시험기관에서 전자파의 인체흡수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 이 규격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험용 표준 마네킹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IEEE : 미국 전기전자 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CENELEC :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휴대폰 제조업체별로 상이한 규격을 사용함에 따라 제조자 및 소비자의 혼란 발생

○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법정허용치는 국가마다 달라 미국은 1.6 W/Kg, 유럽은 2.0 W/Kg을 기준으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두 기준 모두를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리와 일본은 미국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기준은 있으나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없어 제조업체별 시험 기관별 시험결과가 상이하여 소비자들은 구입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할 수 없어 혼란이 있었다.

□ 시험방법 표준도입에 따른 소비자 혼란 방지

○ 이번 KS규격으로 제정되는 “휴대폰의 전자파 인체흡수율 측정방법”은 SAR 허용치의 기준 실장이 아닌 측정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이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최종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친화산업』성공 여부, 표준화가 좌우

— “韓·中·日 고령자 및 장애인 친화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

□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과 주거, 생활공간에 대한 표준화에 착수함으로써 사회적 보호계층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 고령자와 장애인이 사용하게 될 신수요 제품인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매트리스” 등에 대한 품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욕실과 주방

등 주거환경에서도 사회적 보호계층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의 높이, 계단의 경사도, 수납장의 높이 등을 표준화하여 복지선진국의 초석인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 고령자와 장애인의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장벽요인을 제거, 주거와 이동환경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함

○ 특히,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일반 전자제품, 의료기기, 가구 등도 고령자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공용품화 (유니버설디자인)”를 하기위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산·학·연 관계자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동북아 표준화 협력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4월 28일 한국기술센터 (역삼동)에서 韓·中·日 3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韓·中·日 고령자 및 장애인 친화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관련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동향과 실제 산업제품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 “공용품 (日用品 (일본), Universal Design (미국), Design for all (유럽))”

： 특정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또는 서비스 행위

○ 일본 경제산업성 표준과장 (Makoto Yokota)이 「일본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UD)의 산·학·관 연계 및 표준화 정책방향」을, 기술표준원 박태욱 연구관이 「우리나라의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표준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표준화 관련 3개 주제와,

○ 고령친화제품의 UD화, 재활보조기구의 편의성 증진방안, 주거생활공간의 '배리어 프리' 실현방안 등 표준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관련 5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 한편, 기술표준원은 금년 1월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설계지침과 시험방법」에 관한 8종의 KS규격을 제정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포장용기내의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품의 조작편의성을 한층 높이는데 활용하도록 관련업체에 보급한 바 있다.

|| 또한 기술표준원은 금번 심포지엄을 통한 의견수렴과정과 관계부서협의를 거쳐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사회적 보호계층을 위한 복지 관련 규격이 국제규격으로 채택되도록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한국 홈네트워크 기술” 세계에서 인정

— 기술표준원이 제안한 홈네트워크용 공통 통신 프로토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공식 채택 —

○ 기술표준원은 가정내 모든 가전제품들이 제조회사에 관계없이 상호 데이터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통신 프로토콜 (CCP, Common Communication Protocol)”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 제안,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 · 기술개발자 : 장광모 책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 규격명 : 이종네트워크간 데이터전송을 위한 공통통신 프로토콜

(Common communication protocol for generic linkage on heterogeneous networks)

○ 채택된 CCP기술은 금년 3월 전기·전자·정보분야 국제표준화기관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의 신규표준안으로 공식 등록되었으며, IEC 해당 기술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투표질차(2회)를 거친 후 2008년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 기술표준원이 제안한 CCP기술은 IEC 해당 기술위원회 (IEC TC100)의 표준채택에 대한 검토결과 대다수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은 본 표준이 자국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표명

※ IEC TC100 소속 심의국가 15개 국가중 14개 국가 찬성

○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홈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한·중·일 3개 국가가 공동으로 국제표준을 개발할 예정

□ 우리가 제안한 CCP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최종확장되면 WTO/TBT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여러나라의 국가표준으로 채택되게 되며,

○ 이를 통해, 한국은 홈네트워크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위치를 확보하게 될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Maker”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비탄총, 아직도 어린이 안전 위협

(불법·불량 비비탄총의 시중 유통 적극 차단)
-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동 보도 -

11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비탄총 33개 제품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상당수의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어린이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조사 결과 (33개 제품, 조사지역 : 전국 5대도시 및 경기도)

○ '검'자 표시 제품 : 10개 (안전 성능 부적합 3개)

○ '검'자 미표시 제품 : 23개 (모두 안전성능 부적합)

※ '04. 12월 조사 결과 (33개 제품, 조사지역 : 서울·경기도)

○ '검'자 표시 제품 : 20개 (안전 성능 부적합 3개)

○ '검'자 미표시 제품 : 13개 (안전 성능 부적합 12개)

□ 이에, 기술표준원은 적발된 불량·불법 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업자에 대해 수거·과기 등의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은 비비탄총으로 인한 어린이사고 발생시 실명 등의 치명적인 상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였다.

또한, 기술표준원과 소비자보호원은 공동으로 불법·불량 비비탄총의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미생물 균주, 국제 표준균주로 채택

-화장품 국제규격 미생물 시험부문에 국내 표준균주 사용기로-

□ 기술표준원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등 국내 미생물 표준균주 4종을 전세력이 사용토록 국제표준(ISO)에 우리의 기술을 적용시켰다고 발표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화장품도 국제적인 기술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성, 안전성 및 독성에 대한 평가방법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화장품기술위원회(ISO/TC217)에서 이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였다.

11 세계 각국은 그간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미생물시험을 위해 2000년부터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생산한 표준균주 사용만을 인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국내 표준균주를 국제규격에 적용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회의부터 5차례에 걸쳐 우리 미생물 표준균주를 규격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 결과, 금년 3월 회의에서 우리나라 표준균주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그간 외국산 표준균주 사용으로 지불하였던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국내 화장품의 대외 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되었다.

※ 표준균주(Reference strain)란 특정균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할 때 검증균에 대한 생리학적 특성의 비교 대상이 되는 균주로서 시험결과와 신뢰도를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교균주임

※ 국내표준균주(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는 1종당 40,000원이며, 미국표준균주(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는 130,000원 임

※ 국내 시장규모 : 약 8조원(2003년 장업신문, 판매액 기준)

- 생산 : 3조4천5백억원, 수출 : 1억1백만 US\$, 수입 : 4억9천9백만 US\$

※ 대한화장품협회 등록 업체수 : 350업체

12 기술표준원은 2000년 조직된 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기술위원회(ISO/TC217)에 2001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격안 작성시 실무단계부터 국내 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키 왔으나, 생산량기준 세계 5위로 성장한 국내 화장품산업계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규격 제개정 작업에 업계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아직도 미흡하다.

○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 4자 총회 및 관련

작업반회의를 국내(제주)에서 개최하였다.

- 화장품 기술위원회는 한국 등 16개국의 정회원국 및 영국을 포함한 30개국의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생분, 포장 및 라벨링, C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등 5개 작업반에서 화장품관련 국제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 국내 화장품관련 규격은 CIPA(미국화장품협회)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인용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로 운용되어 왔으나 ISO의 규격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해야 할 것임

※ 세계교역량의 7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음. 선진국은 표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면서 개도국시장에는 표준을 앞세워 교역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

우리나라의 안전표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어 전세계에서 사용

- 사용후 전원차단 등 8종의 안전표지 -

- 우리 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사용후 전원차단', '의료용 보안대 작용', '안전복 작용', '관계자의 출입금지', '인화물질 경고', '머리위 장애물 주의', '밀지 마시오', '손을 씻으시오'의 8종의 안전표지가

국제표준안 (ISO/DIS)으로 채택되었다.

- ISO는 '작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전표지'에 대한 국제표준안으로 16종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 8종은 우리 나라의 제안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8종은 러시아 3종, 영국과 독일이 각 2종, 일본이 1종 순으로서, 작년엔 6종의 안전표지를 반영한데 이어, 금년에도 8종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우리 나라가 제안한 '동양인을 반영한 얼굴모형이' ISO 안전표지의 '얼굴기준'으로 채택되어, 지난 30여년간 전세계적으로 사용해 오던 서양인 얼굴형태의 안전표지가 우리 나라가 제안한 '동양인 얼굴형태의 안전표지'로 모두 교체하게 된다는 점과 앞으로 제정되는 안전표지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 또한, 전세계가 우리의 안전표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은 외국 여행이나 생활시 우리에게 익숙한 안전표지를 접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여행이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보다 많은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디자인 강

국외로지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공공안내 및 안전표지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04년도에 제정한 '공공안내 그림표지(KS A 0901 시리즈)' 국가표준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용자인 공공기관과 제작자인 광고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안내 그림표지 국가표준 이용방법 안내서와 그림표지가 수록된 CD를 제작하여 직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휘발성유해물질, 덴마크 Eurofins와 상호인정 체결

○ 휘발성 유해물질(VOCs, HCHO)에 대한 유럽 환경마크 인증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 기업들의 해외수출에 큰 도움, 시험비용 절감(60억원/년간) 및 소요기간 단축(7개월)

○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전자제시험연구원이 유럽 및 비주지역의 대표적 시험기관인 Eurofins와 휘발성 유해물질(VOCs, HCHO)에 대한 시험소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국내기업이 유럽 및 비주지역으로 수출하는 건축자재, 섬유제품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용제(VOCs) 및 포름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환경인증(Labeling)

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하게 됨.

유럽 건축자재 기준은 TVOC : 0.2mg/m³, 포름알데하이드 : 0.5mg/m³이하로 규제

○ 이번의 상호인정 효과는 수출지원 측면에서 볼 때 소요 비용이 2,000만원→1,000만원으로 소요기간 1년→6개월, 절차가 6단계→3단계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국내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시험비용 : 매년 60억원 절감(VOCs, HCHO의 경우)

이와 함께 해외시험과정에서 관련제품 핵심기술 및 신기술 노하우 유출방지와 국내 시험기관의 위상 제고로 개도국의 시험수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유럽의 환경규제분야인,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지침(WEEE),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기차량처리지침(DIV) 등에서 규제하는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설비전기분야 국제전문가 제주로 집결

- IEC/TC 64 국제표준화회의 및 기술세미나 개최 -

IEC 기술표준원은 전기로 인한 건축물의 화재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전기설비 국제표준화회의(IEC/TC 64)와 관련 국제기술세미나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다.

※ IEC/TC 64(건축전기설비)

주택, 공공시설, 공업용시설, 건축현장, 회의장, 전시장 등에 전기로 인한 감전,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

□ 제주회의에는 미국, 일본 등 20여개국 100여명이 참석하며, 각국의 참가대표들은 WTO/TBT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전기설비 및 설계기준에 관한 국제표준이 자국의 기술 및 문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열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서양의 대류식 난방문화와 농양의 온돌문화의 차이를 설명하고, IEC에서 29℃로 추진 중인 최고바닥온도를 각 국가별 생활·문화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국제표준에 제안할 계획이다.

※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TBT)에서는 각국의 중앙정부기관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같은 강제규격을 제정하는 경우 IEC 표준을 기초로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감전보호 및 누설전류 기준', '욕조 등 불기가 있는 곳의 전기 안전을 위한 위험지역 설정' 등 건축물 내의 전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04년 한 해에 국내에서 전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8,800여건으로 총 화재의 27%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 30명, 부상 313명, 재산피해 450억에 달하며, 그 원인은 합선, 과부하, 누전 등임

□ 한편, 국제표준화회의에 이어서 개최되는 '건축전기설비 국제기술세미나'에서는 200여명의 국내참석자를 대상으로 IEC/TC 64 의장인 타일본 박사(프랑스) 등 5명의 국제전문가들이 건축물 전기안전에 대한 최신 기술표준동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는 건축전기설비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에서는 현재 전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 제품 국제 상호 인정범위 대폭 확대

□ 기술표준원은 6개 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4개의 인증마크(KFRI,S,KGS,EN)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품분야의 국제상호인정 기구인 PAC(태평양지역 인정기구 협력체)과의 MLA(국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하고 제품의 상호인정범위를 현재의 25개 분야 143개 품목에서 70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늘여 나갈 계획이다.

□ 6개 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4개의 마크제도(KFRI,S,KGS,EN)는 우리나라 제품인정 제도인 KAS(한국제품인정기구) 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제품인정제도로써 전 세계 4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인정협의회에서 정한 기준(ISO/IEC 가이드 65)에 따라 인증 운

영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품인증분야〉

인증기관명	인증분야	품목	인증마크
한국전기연구원	휴즈등 7분야	15품목	KFRI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비누등 4분야	70품목	S
한국가스안전공사	브일러등 3분야	40품목	KGS
한국전자시험연구원	전선등 11분야	28품목	EN
산업기술시험원	전선등 11분야	28품목	EN
한국전자파연구원	공구등 8분야	17품목	EN
계	25분야	143품목	4개 마크

□ 이번에 KAS 인정제품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으로는 추가적인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나 해외수출시 시장 경쟁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는 제품인증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키 향후 5년 이내에 현재에 6개 인증기관을 40개 인증기관으로 확대, 제품 인정범위도 25개 분야에서 70개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포장, 어린이 참여를 통해 안전기준 실효성 확인

- 기술표준원·소비자보호원 공동으로 실시 -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방향제, 세정제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적용하게 되는 어린이 보호포장(안전마개)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 이번 시험은 전국 26개 어린이집에서 1,0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와 국내개발 어린이 보호포장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

□ 현재까지 75%정도 진행된 시험결과를 보면, 어린이 보호포장 형태의 용기는 규정시간내에 뚜껑을 여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정용 화학제품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표준**



제17대 김혜원 기술표준원장 취임식(2005. 4. 19)